



발행처 :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지식서비스연구소 발행인: 박광호
편집 : 김희을, 강지혜, 김은비, 김철민, 박민정, 서예지, 장윤빈, 한상일, 한준희

Inside Story



- 2011 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글로벌 포럼 개최
-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안내

교수님 근황



- 이달의 교수님
- 이성욱 교수님

대학원 이야기



- 석사1기 신입생 인터뷰
- 재학생 인터뷰
- 논문 공모전 수상 소식

Issue & Event

- 10월 대학원 관련 소식
 - 2012 전기 신입학 원서 접수: 10월 19일(수)~24일(월)
 -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기간: 10월 10일(월)~14일(금)
 - (박사는 학과내규 논문게제편수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2011 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글로벌 포럼 개최



본 대학원 주관으로 지난 8월 31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글로벌 포럼이 개최되었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및 지속성장(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 논의된 이번 포럼에는 산둥대학교의 고보옥(Gao, Baoyu) 원장과 류여도(Liu, Rutao) 부원장,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장복해(Teo, Hockhai) 교수 등의 강연자로 초청되어 참여하였고,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원석희 학장, 박광호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러한 글로벌 포럼을 발판삼아 중소기업청 지원 컨설팅대학원 R&D센터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전과 전략 방안 수립 및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에 관한 세부 방법의 발전 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안내

총 50억 규모의 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국책사업에 선정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에서 2012학년도 전기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각종 장학금 혜택과, 해외 연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경영 관련 컨설턴트로서 학문을 연마하기에 최고의 조건이 제공되는 이번 모집은 10월 12일(수) 입학 설명회가 개최되고, 10월 1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고,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mc.hanyang.ac.kr나 031-400-5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총 50억 규모의 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국책사업에 선정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에서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을 모집합니다.

풍부한 장학금 지원

석사·박사 풀타임 전액 장학금 지급
조교장학금, 파트타임 성적장학금 지급

해외 연수 기회 제공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해외인턴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경영혁신, 그린비즈니스, 기술가치평가,
IT기반혁신 컨설턴트 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3학기 후 인턴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입 학 설 명 회 2011년 10월 12일(수) 오후 5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상대학 207호

▶인터넷 원서접수 <http://www.sgs.hanyang.ac.kr>

▶원서접수 기간 2011년 10월 19일(수)09:00~2011년 10월 24일(월)17:00까지

▶면접일자 2011년 11월 5일(토)

▶입학상담
· 홈페이지 : <http://mc.hanyang.ac.kr>
· E-mail : mcmaster@hanyang.ac.kr
· Tel : (031)400-5036

The Engine of Korea
HANYANG UNIVERSITY

※ Post - Doctor(박사후 과정) 모집

■모집 대상 : 박사학위 소지자 / ■전형 방법 : 면접 후 채용



한양대학교

교수님 근황



강의실에서 접하는 깊이 있는 학문의 가르침,
그 밑에는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피땀 어린 연구에 대한 고뇌가
녹아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매달 한 분의 교수님을 선정하여
현재 근황과 연구분야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이달의 교수님 - 이성욱 교수님 >

Q)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0년 7월 ~ 2011년 7월까지 Florida State University에 교환 교수로 다녀왔다. 교환 교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경영학 대학원에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미국으로 경영학 박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어렵고,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장학금 수혜가 어렵고 중국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현재 2011년 9월 1일부터 경영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Q) 교수님, 교수님의 최근 관심 있는 연구분야가 궁금합니다

A) 요즘 고민하는 것이 산업이 발달할 때와 하락할 때, 흥망성쇠라고 하지 않나? 이런 흥망성쇠의 과정에서 원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다. 특히, 일본의 철강 산업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원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가 주요 관심 분야이다. 또한, 미국의 병원산업과 한국의 병원 산업의 자원배분 차이에 관심이 있다.

Q) 대학원 원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대학원에 왔지만 전공이 컨설팅이다 보니 기능적인 부문과 학문적인 부문을 균형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직업을 갖거나 연구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두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식하게 공부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무식이 無識; 아는 것이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無息; 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이다. 쉬 없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대학원 이야기 - 석사1기 신입생 인터뷰



김태형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와 재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부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진학을 한 이상 거창한 꿈보다는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

진정한 '비즈니스 닥터'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은 끊임없이 전공공부를 하고 기업 병에 대한 진단능력을 함양하고 문제제기와 아울러 해결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의 흐름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앞서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강불식(自強不息)이란 말을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최소연

학사 졸업 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경영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린 비즈니스와 지속가능 경영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것 보다는 실무에 바로 적용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경영컨설팅 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출신이라 기초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필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조언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전공과 경영컨설팅의 접목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고자 합니다



한준희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고 싶은 마음으로,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그리고 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학기 초반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고 어색한 부분도 많지만 함께 공부하는 원우들로 인하여 많은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MIS 및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BSC에 관심이 있어 앞으로 대학원 수업과 프로젝트, 논문 등을 수행하면서 공부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원 이야기 - 재학생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석사2기 안현주입니다 (이하 안).
안녕하십니까, 석사2기 천관호입니다 (이하 천).



<안현주>



<천관호>

Q. 이번 학기 임하는 목표와 각오는?

- A. 안: 2학기 시작과 동시에 과제와 논문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지만 교수님들의 충고와 지지에 힘입어 열심히 목표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 천: 첫 학기를 보내고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12월의 일본어 능력시험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물론, 학기중의 수업에 관련된 정보수집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보내면서 학부는 4년이지만 대학원은 2년이라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학기 수강과목과 각자 첫 느낌

- A. 안: 이번 수강과목 중 필수 2과목은 서울 행당캠퍼스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안산-서울을 오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quality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실무에 계시는 분들과 Team Project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 천: 무리하지 않도록 수강신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미나 수업은 제가 세미나 수업자체가 처음이라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방학 중 활동내용과 그로 인해 새롭게 배운 점

- A. 안: 이미 뉴스레터에도 소개가 되었었지만 중국 산둥대학교에 학술보고를 다녀 왔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해 복구 봉사활동참여로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 천: 엘지 이노텍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일하면서 해볼 수 있는 일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은 가지고 왔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연구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신입생을 맞이한 소감과 전하고 싶은 말

- A. 안: 정신없이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신입생을 맞이 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보다는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않고 지금의 마음가짐대로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가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 천: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아직 웬만한 신입생들 뿐 아니라 동기까지도 다들 이쁘고 귀여운 좋은 동생들이네요. 어떠한 분야를 갈 것인지 빨리 방향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대학원 이야기 - 논문 공모전 수상 소식



<생산성 향상 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서예지(왼쪽 첫째), 한상일(오른쪽 셋째) 원우 >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제5회 생산성 향상 대학(원)생 논문 공모` 시상식이 9월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우리 과 학생인 서예지, 한상일 원우가 "기업의 공급사슬 확장과 가치창출의 상관관계 분석 : 서비사이징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공동 3위, 우수상을 수상 하였다.

해당 논문은 최근 제조업체의 서비사이징 트렌드를 진단하고 서비사이징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전후의 공급사슬의 변화와 가치창출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가치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